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Q

→

+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의원/약국/안경

학원
5% 할인
학원/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부산체육사랑카드

BNK 부산은행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체히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부산광역시체육회

2025. 10 Vol. 83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Vol. **83**
2025. 10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및 경기 일정

Sports is Busan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자원봉사 및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종목 소개
씨름&택견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5. 10 Vol. 83

발행일 2025년 10월 17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8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문찬식, 공제원, 김성무,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051-500-7900

기획·제작 (주)디자인제로

 
Instagram 카카오톡 채널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부산 스포츠

- 04 체전은 지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및 경기 일정
- 08 부산체육人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 12 금빛 훈련일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관내 실업팀 소개
- 20 푸른 바다, 큰 꿈
성지고등학교 배구부

산뜻한 출발, 영광의 시작

- 24 Sports is Busan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자원봉사 및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26 전국체전 trivia
숫자로 알아보는 전국체육대회의 기념비적인 순간들
-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

하 나된 꿈, 행복으로

- 34 스포츠 기자단
- 2025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2회 차
- 2025 세븐브릿지 투어
- 38 종목 소개
씨름&택견
- 42 스포츠&컬처
서부산 '슈퍼어싱 페스티벌'

나와 너, 우리 함께

- 44 BSC 뉴스
- 2025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 부산광역시,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
- 2025년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48 회원단체 소식
- 52 센터 INFO
-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 56 부산체육 퀴즈



08 부산체육人



20 푸른 바다, 큰 꿈



24 Sports is Busan



30 함께하는 부산체육



34 스포츠 기자단



42 스포츠&컬처



44 BSC 뉴스



54 종목·공공스포츠클럽 소식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및 경기 일정

2025년 10월 17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막을 올린다.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 부산 전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는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종목별 경기 장소와 시간을 참고하여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확인해 보자.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현황												
지역	종목	종별	경기장	지역	종목	종별	경기장	지역	종목	종별	경기장	
동구 (1)	보디빌딩	고등부	부산시민회관	해운대 구 (11)	복싱	전종별	BEXCO (제2전시관 5C)	연제구 (8)	궁도	전종별	사직정	
영도구 (5)	근대5종	레이저런	부산체육고등학교		스쿼시	해외동포	해운대교육지원청		산악	전종별	사직종합운동장 중앙광장	
	근대5종	수영	부산체육고등학교		씨름	전종별	BEXCO (제2전시관 5B)		육상	트랙	아시안드주경기장	
	근대5종	장애물	부산체육고등학교		에어로빅	전종별	BEXCO (제2전시관 5A)		육상	필드	아시안드주경기장	
	근대5종	펜싱	광명고등학교		합합	전종별	수영만요트경기장		육상	마라톤	아시안드주경기장	
	철인3종	전종별	국립해양박물관 일원		요트	전종별	수영만요트경기장		육상	하프 마라톤	아시안드주경기장	
부산 진구 (3)	배구	여자부	학생문화회관		육상	경보	석대동 일원	육상	10km 로드	아시안드주경기장		
	볼링	여고부	서면볼링센터	축구	해외동포	해운대수목원 축구장	합기도		전종별	부산교육대학교 제1체육관		
동래구 (6)	우슈	전종별	동의과학대학교 석당문화관	사하구 (6)	롤러	전종별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팅장	사상구 (2)	럭비	전종별	삼락천연잔디축구장	
	배구	남고부	동래중학교 송백관		볼링	해외동포	평기락볼링센터		배구	남자부	동서대학교 체육관	
	볼링	남일반	삼성볼링센터		볼링	대학부	코스모스볼링장	수영구 (1)	바둑	전종별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세팍 타크로	전종별	사직실내체육관		소프트 테니스	전종별	을숙도 실내테니스장		골프	전종별	아시아드CC	
	수영	전종별	사직실내수영장		양궁	전종별	을숙도체육공원 축구장	당구	전종별	기장실내체육관		
	체조	전종별	사직실내체육관		택견	전종별	부산보건대학교 체육관	사이클	전종별	기장산악경기장		
	핀수영	전종별	사직실내수영장		금정구 (6)	농구	일반부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	기장군 (10)	야구	일반부	현대차드림볼파크 메인
	볼링	여일반	대연킴스볼링장	농구		고등부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	야구		고등부	현대차드림볼파크 보조	
스쿼시	전종별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이클	트랙		스포원 싸이드롬	야구	전종별		소프트볼경기장		
역도	전종별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테니스	대학/ 일반/해외		스포원파크 테니스장	축구	남고부		기장월드컵빌리지 인조B		
남구 (7)	유도	전종별	부경대학교 체육관	펜싱		전종별	스포원 실내체육관	축구	남일반	기장월드컵빌리지 천연A		
	주짓수	전종별	동명대학교 체육관	핸드볼	전종별	스포원파크 실내체육관	축구		남일반	기장월드컵빌리지 천연B		
	축구	남대부	동명대학교 운동장	강서구 (7)	배드민턴	전종별	강서실내체육관		타지역 (5)	탁구	전종별	기장실내체육관
	축구	남대/여대	백운포 축구장 2구장		양궁	결승전	강서체육공원 양궁장			사격	전종별	창원국제사격장
	볼링	남고부	레인보우스퀘어락		조정	전종별	서낙동강 조정경기장	사이클		도로	김해시 일원	
수상스키	전종별	화명수상레포츠타운	축구		여일반	명지근린공원축구장	승마	전종별		상주국제승마장		
북구 (4)	축구	여고부	화명생태공원 축구장D		카누	전종별	서낙동강 카누경기장	족구	남자부	양산실내체육관		
	테니스	고등부	화명테니스장	태권도	전종별	강서실내체육관	족구	여자부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검도	전종별	한마음스포츠헤나	해운대 구 (11)	하키	전종별	강서체육공원 하키경기장					
농구	3x3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댄스 스포츠	전종별	해운대교육지원청										
레슬링	전종별	BEXCO (제2전시관 5D, E)										

연도	구분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일정							경기장
	종목	종별	10.17.(금)	10.18.(토)	10.19.(일)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1	검도	18세이하부	-	-	-	-	09:00~15:45	09:00~14:15	-	부산한마음 스포츠센터
		대학부	-	-	09:00~16:35	-	-	-	-	
		일반부	-	-	-	09:00~17:45	-	-	-	
		여자부	-	09:00~15:15	-	-	-	-	-	
		해외동포	-	15:30~19:00	-	-	-	-	-	
2	골프	전종별	-	-	-	07:00~15:00	07:00~15:00	07:00~15:00	07:00~15:00	아시아드CC
		해외동포	-	-	-	-	07:00~15:00	07:00~15:00	07:00~15:00	
3	궁도	일반부	-	08:30~18:00	08:30~18:00	08:30~18:00	-	-	-	사직정
4	근대5종	펜싱	07:30~12:30	07:00~12:30	07:00~13:00	09:00~16:00	-	-	-	광명고등학교 체육관
		수영	14:30~15:30	13:50~14:50	15:00~15:30	17:20~18:00	-	-	-	부산체육고등학교 수영장
		복합	16:30~17:30	15:30~17:30	16:30~17:30	-	09:00~11:40	-	-	부산체육고등학교 운동장
		장애물	11:30~12:00	-	-	-	-	-	-	
5	농구	남18세이하부	-	12:30~17:00	11:30~17:30	14:00~17:00	14:00~17:00	14:00~17:00	12:40~14:20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관
		여18세이하부	-	11:00~12:30	10:00~11:30	11:00~14:00	11:00~14:00	11:00~14:00	11:00~12:40	
		일반부	-	11:00~14:00	10:00~13:00	-	-	-	-	부산대학교 경암체육관
		남자일반부	-	15:40~17:20	16:20~19:40	14:20~17:40	14:20~17:40	14:20~17:40	12:50~14:40	
		여자일반부	-	14:00~15:40	13:00~16:20	11:00~14:20	11:00~14:20	11:00~14:20	11:00~12:50	
6	당구	3x3(남자일반부)	-	13:00~18:00	14:00~17:00	-	-	-	-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일반부	사전 경기							기장체육관
7	댄스스포츠	브레이킹 전종별	13:00~17:00	-	-	-	-	-	-	해운대교육지원청 스포츠교육센터
		리턴, 스탠다드 전종별	-	-	11:00~17:00	11:00~17:00	-	-	-	
8	러비	18세이하부	10:00~15:10	-	-	10:00~12:30	-	-	11:00~12:10	삼락생태공원 축구장
		일반부	-	-	-	12:40~15:50	-	-	12:20~13:50	
9	레슬링	그레고로만형	-	10:00~17:00	10:00~17:00	10:00~17:00	-	-	-	BEXCO 제2전시장(5D, 5E)
		자유형	-	-	-	-	10:00~17:00	10:00~17:00	10:00~15:00	
		여18세이하부	-	10:00~17:00	10:00~17:00	-	-	-	-	
		여자일반부	-	-	-	10:00~17:00	10:00~17:00	-	-	
10	롤러	전종별	공식연습 07:00~19:00	10:00~17:00	10:00~17:00	10:00~17:00	-	-	-	울속도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팅장
11	바둑	전종별	-	10:00~18:00	10:00~16:00	-	-	-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12	배구	남18세이하부	10:00~18:00	10:00~14:00	10:00~18:00	10:00~14:00	10:00~12:00	-	-	동래중학교
		여18세이하부	09:00~17:00	10:00~14:00	10:00~14:00	10:00~14:00	10:00~14:00	10:00~12:00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여자일반부	17:00~19:00	14:00~16:00	14:00~16:00	14:00~16:00	14:00~18:00	12:00~14:00	-	
		남자대학부	10:00~14:00	10:00~12:00	10:00~14:00	10:00~14:00	09:30~11:30	10:00~12:00	-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허브 2층
		남자일반부	14:00~16:00	12:00~16:00	14:00~16:00	14:00~16:00	11:30~13:30	12:00~14:00	-	
13	배드민턴	전종별	사전 경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14	보디빌딩	18세이하부	-	13:00~16:00	-	-	-	-	-	부산시민회관
15	복싱	전종별	11:00~18:00	11:00~18:00	11:00~18:00	11:00~18:00	11:00~18:00	11:00~14:00	-	BEXCO 제2전시장(5C)
16	볼링	남18세이하부	공식연습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2:30	-	레인보우스퀘어 볼링장
		여18세이하부	공식연습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2:30	-	서면볼링장
		대학부	공식연습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2:30	-	코스모스볼링장
		남자일반부	공식연습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2:30	-	삼성스포렉스볼링장
		여자일반부	공식연습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2:30	-	대연킨스볼링장
17	사격	해외동포	공식연습 10:00~18: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2:30	-	평기락볼링장
		공기총	09:00~14:30	09:00~17:20	09:00~17:00	09:00~16:00	09:00~12:30	-	-	
		10M라일타겟	09:00~11:00	09:00~13:00	-	-	-	-	-	
		화약총	09:00~12:30	09:00~15:30	09:00~15:30	09:00~14:30	09:00~12:30	-	-	
18	사이클	트랙	-	-	-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5:00	스포원파크 싸이드룸
		도로	09:00~15:30	09:00~13:30	09:00~15:00	-	-	-	-	김해 일원 도로
		MTB	-	-	-	09:00~15:00	-	-	-	일광산테마임도
19	산악	일반부	07:00~13:00	08:00~21:00	08:00~20:00	-	-	-	-	사직종합운동장 중앙광장
20	세팍타크로	전종별	공식연습 09:00~18:00	10:00~19:30	10:00~19:30	10:00~15:00	-	-	-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21	소프트테니스	전종별	-	09:00~20:00	09:00~20:00	09:00~20:00	09:00~20:00	09:00~18:00	-	물속도 다목적 실내생활체육관
22	수상스키	전종별	07:00~18:00	07:00~18:00	07:00~18:00	-	-	-	-	화명 수상레포츠터운
23	수영	경영	공식연습 09:00~18:00	10:00~19:00	10:00~19:00	10:00~19:00	10:00~19:00	10:00~19:00	09:00~13:00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수구	19:00~23:30	19:30~24:00	19:30~24:00	19:30~23:00	19:30~23:00	19:30~23:00	13:00~16:00	
		다이빙	공식연습 09:00~18:00	10:00~18:30	10:00~18:30	10:00~18:30	10:00~18:30	-	-	
24	스쿼시	18세이하부(단체/개인)	10:00~17:00	10:00~19:00	09:00~20:00	09:00~20:00	09:00~18:00	10:00~15:00	-	경성대학교 스포츠센터 스쿼시장
		일반부(단체/개인)								
		해외동포								
25	승마	일반부	09:00~15:00	09:00~16:00	09:00~15:30	-	-	-	-	해운대교육지원청 스쿼시장
		일반부	-	-	-	-	-	-	-	삼주 국제승마장
26	씨름	18세이하부(개인전)	10:00~16:00	10:00~13:00	-	-	-	-	-	BEXCO 제2전시장(5B)
		18세이하부(단체전)	-	13:00~18:00	-	-	-	-	-	

연도	구분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일정							경기장
	종목	종별	10.17.(금)	10.18.(토)	10.19.(일)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26	씨름	대학부(개인전)	-	-	10:00~16:30	10:00~13:00	-	-	-	BEXCO 제2전시장(5B)
		대학부(단체전)	-	-	-	13:00~18:00	-	-	-	
		일반부(개인전)	-	-	-	-	10:00~18:00	12:00~13:40	-	
		일반부(단체전)	-	-	-	-	10:00~16:30	14:30~19:00	-	
		여자부	-	-	-	-	-	10:30~12:00	11:00~13:00	
27	아구 소프트볼	남18세이하부	09:00~16:30	09:00~16:30	09:00~16:30	09:00~16:30	-	10:00~15:30	10:00~12:30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 보조B
		남자일반부	09:00~16:30	09:00~16:30	09:00~16:30	09:00~16:30	-	10:00~15:30	10:00~12:30	기장 현대차드림볼파크 메인아구장
		여18세이하부	-	-	-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기장 소프트볼 경기장
		여자일반부	-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28	양궁	전종별	공식연습 12:30~18:00	-	-	08:30~17:40	08:30~16:45	★ 08:30~17:05	-	★강서체육공원 양궁장 울속도체육공원 축구장
29	에어로빅힙합	전종별	공식연습 10:30~18:00	11:00~18:00	11:00~18:00	-	-	-	-	BEXCO 제2전시장(5A)
30	역도	전종별	10:00~20:00	10:00~20:00	10:00~20:00	10:00~20:00	10:00~20:00	10:00~20:00	-	부산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
31	요트	전종별	-	10:00~17:00	09:00~16:00	09:00~16:00	09:00~16:00	09:00~16:00	-	수영요트경기장
32	우슈	전종별	공식연습, 계체량 09:00~18:00	10:00~18:40	10:00~19:40	10:00~13:00	-	-	-	동아과학대학교 석담문화관
33	유도	남18세이하부	-	-	-	10:00~17:00	-	-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체육관
		여18세이하부	-	-	-	-	10:00~17:00	-	-	
		대학부	10:00~17:00	-	-	-	-	-	-	
		일반부	-	10:00~17:00	-	-	-	-	-	
		혼성단체(18세이하)	-	-	-	-	-	10:00~16:00	-	
		혼성단체(대학, 일반)	-	-	10:00~16:00	-	-	-	-	
34	육상	트랙/필드	-	-	09:30~18:00	10:00~17:30	10:00~18:00	10:00~14:30	-	아시아드경기장
		마라톤	-	-	08:00~11:10	-	-	-	-	부산광역시 관내 도로
		하프마라톤	-	-	-	-	10:30~12:00	-	-	
		10KM	-	-	-	-	-	10:00~11:00	-	
		경보	-	-	-	-	08:00~10:10	-	-	
35	조정	전종별	-	07:00~18:00	07:00~18:00	07:00~18:00	-	-	-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36	족구	남자일반부	-	08:00~19:00	08:00~13:00	-	-	-	-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여자일반부	-	08:00~19:00	08:00~13:00	-	-	-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종합체육관
37	주짓수	전종별	10:30~15:00	10:30~15:00	10:30~14:00	-	-	-	-	동명대학교 실내체육관
38	철인3종	18세이하부	-	-	08:00~09:20	-	-	-	-	국립해양박물관 일원
		남자일반부	공식연습 14:30~16:00	11:00~13:30	-	-	-	-	-	
		여자일반부		08:00~10:30	-	-	-	-	-	
		일반부(혼성릴레이)		-	-	10:00~11:40	-	-	-	
39	체조	기계체조	사전 경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리듬체조								
40	축구	남18세이하부	10:00~18:00	-	10:00~18:00	-	10:00~14:00	-	10:00~12:00	기장월드컵빌리지(인조B)
		남자대학부	★ 10:00~18:00 10:00~18:00	-	-	-	11:00~15:00	-	12:00~14:00	★백운포체육공원 2구장 동명대학교 축구장
		남자일반부	-	10:00~19:00	-	12:00~16:00	-	12:00~14:00	-	기장월드컵빌리지(천연A)
		여18세이하부	-	10:00~18:00	-	10:00~14:00	-	10:00~12:00	-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여자대학부	-	-	10:00~18:00	-	11:00~15:00	-	11:00~13:00	백운포체육공원 2구장
		여자일반부	-	-	10:00~18:00	-	11:00~15:00	-	13:00~15:00	명지근린공원 축구장
		해외동포부	-	10:30~16:00	10:30~16:00	-	10:30~14:00	10:30~13:00	-	해운대수목원 축구장
41	카누	전종별	사전 경기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42	탁구	전종별	-	09:30~17:00	09:30~19:30	09:00~19:30	09:30~15:30	10:00~13:00	-	기장체육관
		해외동포	-	-	15:00~19:30	09:00~14:00	09:30~13:00	-	-	
43	태권도	전종별	사전 경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해외동포								
44	택견	전종별	-	09:00~18:00	09:00~12:30	-	-	-	-	부산보건대학교 체육관
45	테니스	18세이하부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600	-	화명생태공원 테니스장
		대학부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6:00	-	스포원파크 테니스경기장
		일반부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	
		해외동포부	-	09:00~18:00	09:00~18:00	09:00~18:00	-	-	-	
46	펜싱	전종별	사전 경기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
47	핀수영	전종별	사전 경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48	하키	남18세이하부	13:40~16:50	-	09:00~10:20	-	-	-	-	강서 하키경기장
		여18세이하부	10:00~13:10	16:20~17:40	-	-	-	-	-	
		남자일반부	-	10:50~15:50	-	10:00~16:50	-	10:00~13:10	11:50~13:10	
		여자일반부	-	09:00~10:20	10:50~17:40	-	10:00~13:10	-	10:00~11:20	
49	합기도	전종별	09:00~16:00	09:00~16:00	09:00~12:00	-	-	-	-	부산교육대학교 제1체육관
50	핸드볼	전종별	10:00~18:00	10:00~18:00	10:00~18:00	10:00~21:00	10:00~21:00	10:00~21:00	10:00~15:00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

The 106th NATIONAL SPORTS FESTIVAL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전국체육대회,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전국체육대회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대표 체육 축제로, 체육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체육대회의 성과가 곧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로 이어지는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올해 10월에는 그 뜨거운 관심이 부산을 향하게 되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최일선에 서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을 만나 소감을 들어 보았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대회 비전은 '부산의 역동성과 시민 열정을 담은 스포츠 축제'입니다. 스포츠를 통해 부산이 가진 해양도시 정체성과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며, 시민이 주인공인 대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000년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에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찾아온 선수와 응원단이 부산의 매력에 빠져들 게 하겠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뛰고,
울고, 웃는 순간
우리 모두 주인공입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전’과 ‘시민 참여’입니다. 선수단과 관계자, 가족 등 십만 명 이상이 부산을 방문하는 만큼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소방본부,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회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대회 주최 도시의 일원으로서 시민이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행사, 체험 프로그램 같은 여러 분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 성적과 성적 달성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적은 종합 3위권 이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라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선수 육성 인프라에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표 성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 성적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전략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종목 선수들의 사기와 컨디션이 좋아 목표 성적을 넘어서는 결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선전이 기대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단체전에서는 검도, 럭비, 세팍타크로, 야구 종목이 강세이고, 개인전에서는 사격과 에어로빅 힙합 종목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도시답게 요트, 조정, 카누 등 수상 종목 실력이 뛰어나며, 전통적으로 강세인 배드민턴과 펜싱 종목에서도 부산체육의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성적은 예산과 비례하는 게 현실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한정된 예산으로

선수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수도권에 비해 지방체육회 예산이 부족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성과와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훈련비와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후원과 기업 협력으로 재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산에 따른 한계는 지도자와 선수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도자와 선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예산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체육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우리 체육회에서는 19개 종목 실업팀을 운영하고, 6개 종목 시청 실업팀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1개 종목 우수선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문 트레이너와 스포츠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고, 재활과 영양 관리 프로그램으로 부상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과 전국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며,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하여 체육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려 25년 만에 ‘부산’이 전국체육대회 주인공이 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 부산을 빛내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렬히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대회는 부산체육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 주십시오. 체육인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이 부산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외쳐주세요. ‘부산이니까,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뛰고, 울고, 웃는 순간, 우리 모두 주인공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 관내 실업팀 소개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부산광역시체육회 선수단이 확정되었다.

총 2,0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대회에 참가한다.

25년 만에 연고지에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선수단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체육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산을 대표할 선수단을 소개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남)



부산광역시체육회 검도팀(여)



부산광역시체육회 근대5종팀



부산광역시체육회 당구팀



부산광역시체육회 레슬링팀



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



부산광역시체육회 배구팀



부산광역시체육회 복싱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소프트테니스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영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씨름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에어로빅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체조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카누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역도팀



부산광역시체육회 철인3종팀



부산광역시체육회 테니스팀(여)



부산광역시체육회 핀수영팀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유도팀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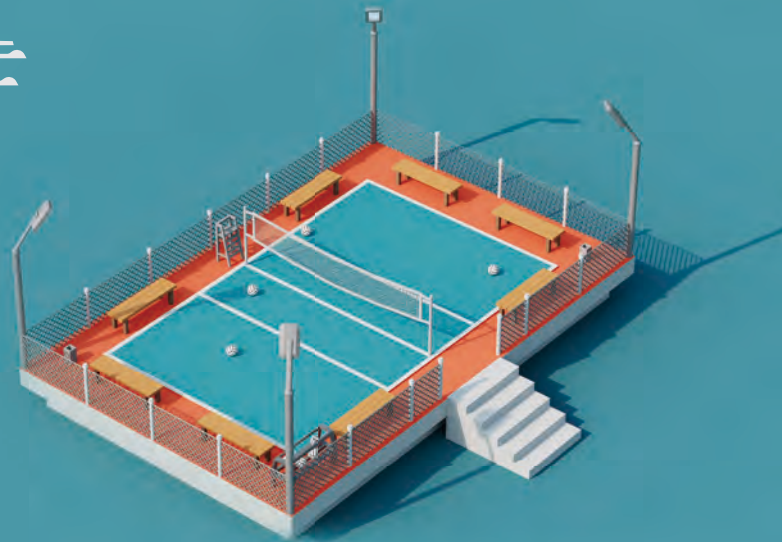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여)

전성기 영광을 재현하는 53년 역사 배구 명문

성지고등학교 배구부

성지고 배구부는 긴 역사만큼
훌륭한 선수, 지도자들을 셀 수 없이 배출했다.
선수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잠시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비상을 준비 중이다.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막바지 훈련에 바쁘지만 부산체육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었다.



열정 넘치는 지도자와 15명 선수들

성지고를 방문한 9월 말, 배구 코트에서는 10월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이 한창이었다. 성지고 배구부는 이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해 3년 연속으로 전국체육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배구부 사령탑 정대기 감독, 이병국 지도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구를 시작해 대학까지 배구 선수로 활약했다.

“감독으로 부임한 2023년에는 저 혼자 지도했고 선수도 6명이어서 고충이 약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도자 선생님도 계시고, 선수도 15명으로 많이 늘어나서 훈련 환경도 좋고 서로 합심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총동문회 선배님들, 부산지역 중학교 지도자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현재 배구부에는 3학년 6명, 2학년 4명, 1학년 5명 선수가 활약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보니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정규 수업에 모두 참여한 후 훈련을 시작한다.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은 기초 체력, 근력 훈련을 주로 한

다. 저녁 식사 및 휴식이 끝난 오후 7시 반부터 3시간 정도는 시스템 운영 및 전술 훈련을 주로 하고, 선수별로 필요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다. 시험 유무, 선수 컨디션 등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기도 한다.

매년 성장하는 성지고 배구부

정 감독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2023년 전국체육대회, 이 지도자는 올해 IBK기업은행배 전국대회를 꼽았다.

“2023년 전국체전 상대 팀이 당시 3관왕을 하던 막강한 학교였어요. 반면 당시 우리 학교 선수들은 딱 6명밖에 없었고 리베로(수비 전담) 포지션 선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선수들과 함께 아쉬움을 달래고 나니 더 끈끈해지고 이후 훈련에서 투지를 더 불태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배 대회 예선전에서 3관왕 상대 팀을 이기고 8강전에 진출했어요. 명성이 자자한 강력한 팀을 이겼다는 게 너무 기뻐고, 6년 만에 이룬 8강전 진출이라 더 좋았습니다. 선수들과 부둥켜안고 눈물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 감독은 성지고등학교 선수들의 강점으로 기본기, 스피드, 열정을 꼽았다.





모든 선수들이 각자 기본기가 탄탄해 지도하는 내용을 잘 흡수하고, 본인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을 보면 뿌듯하다고. 타 학교와 비교해 신장이 큰 편은 아니지만, 경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속도감 있게 운영하는 점도 뛰어나다고 했다.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흘리는 눈물을 보면 정 감독 역시 마음이 아프지만, 그것을 밑거름으로 하루하루 발전해나가는 선수들의 모습에는 뭉클함을 느낀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

정 감독, 이 지도자의 목표와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올해는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열리는 데다가 긴 시간 열심히 준비해 왔기에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현재 전국체전을 대비해 경기에 임하는 자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하고 있어요. 어떤 경기든 성적이 안 좋아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다른 어느 팀에도 뒤지지 않는 배구에 대한 열정을 지금처럼 가지고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지고에 다니고 있는 졸업을 했던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움 주고 싶네요.”

“3학년 선수들은 이번 전국체전이 고교 마지막 경기입니다. 현재 1, 2, 3학년 멤버가 한 팀으로 뛸 수 있는 마지막 경기기에, 특히 3학년 친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상관 없이 결코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mini interview

정우승 성지고등학교 교장

우리 학교 배구부는 1972년에 창단되었고 강만수 한국배구연맹 유소년위원장, 신치용 前 진천선수촌장, 권준형 페퍼저축은행 지도자 등 훌륭한 지도자 및 선수들을 배출한 배구 명문고입니다.

선수들을 지도할 때 팀워크나 기술 등과 더불어 선수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보다 선수가 즐겁고 행복하게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지금은 꼭 국가대표가 되지 않더라도 프로 선수, 체육 교사, 스포츠클럽 지도자 등 다양한 체육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교는 배구부 선수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고, 추후 선수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되도록 인성 지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장 맹준우 선수(3학년, 아웃사이드 히터)

초등학교 때 다른 운동을 하다 중학교 배구부 선생님께서 발탁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올해 5월에 열렸던 경북사대부고 종별선수권대회 예선전입니다. 그날 컨디션이 아주 좋아서 공격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선수들이 제가 공격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저도 그것을 잘 연결시켜서 그날 40점 이상 득점을 했어요.

저는 배구공으로 스파이크할 때 나는 ‘팡’ 하는 소리가 배구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원시원한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기분입니다.

롤 모델은 일본 타카하시 란 선수입니다. 신장은 작지만 기술이 다방면으로 뛰어나 언젠가 꼭 경기를 직관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모든 열정을 쏟아 넣고 마무리하고 싶어서 요즘 팀 훈련이 끝난 후에도 남아 개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주장인 저를 믿어주고 따라와주는 선수들을 저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 선배 때로는 인생 선배도 되어 주시는 감독님, 지도자님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프로 선수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부주장 조동연 선수(3학년, 리베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권유로 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올해 IBK기업은행배 전국대회 예선전입니다.

상대 팀이 워낙 막강해서 당시 긴장감이 아직도 느껴지네요.

첫 세트에 패하고 다음 세트에 이기는 등 옆치락뒤치락 승패가 엇갈리다 승리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리베로인 제가 흔들리면 공격수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으므로, 제가 무조건 끝까지 버티고 절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경기하기 전에 코트에 올려 퍼지는 관중들의 응원, 선수 기합 소리가 좋습니다. 그 소리들이 주는 적당한 긴장감과 설렘이 경기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전국체전에서 우승해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고 싶고, 고교 졸업 후에는 대한항공 강승일 선수 같은 멋진 프로 선수가 되어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자원봉사 및 시민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올해도 성대하게 막을 올릴 전국체육대회. 이번에는 부산이 그 무대가 되었다.

지난 2000년 이후 오랜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여서, 부산 시민들의 열정 또한 대단하다.

이에 부산시는 자원봉사팀과 시민서포터즈를 꾸려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들은 부산의 따뜻한 손님맞이 문화를 알릴 얼굴이자 대회의 숨은 주역들이다.

부산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지난 9월 17일, 19일에 두 번 진행됐으며, 다양한 체험행사와 퍼포먼스 등이 마련된 축제의 장이었다.



전국체육대회를 지지하는 숨은 공로자들

17일 진행된 자원봉사자 발대식은 2,50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전국체육대회 관계자들, 부산시 주요 내빈들이 참여했다. 이번 발대식은 전국체육대회의 첫 번째 행사인 만큼, 풍성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길 바라며 큰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이날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해왔다. 무더운 8월을 기점으로, 더 좋은 자원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워크숍과 직무교육을 꾸준히 들었다. 땀별 아래서 환경 미화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며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자신을 갈고닦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발대식은 무엇보다 뜻깊었다. 발대식은 화려한 깃발을 흔드는 기수들이 막을 올렸다. 이어진 식전 공연은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발대식은 참여한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하지만 결의문을 낭독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 함께 오른손을 들고 안전하고 기억에 남을 행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발대식의 꽃은 공굴리기 퍼포먼스였다. 참여자들은 7개의 대형 공을 굴려 무대 위로 올린 뒤 ‘2025 부산 자원봉사 함께 체전 성공’이라는 문구를 만들었다. 이는 ‘함께 굴리는 희망, 하나로 모아지는 메시지’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다. 발대식 후에는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된 브이 페스티벌이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자원봉사 체험을 통해 그들이 맡은 의무와 책임을 상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박형준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봉사 정신이 대한민국 체육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국체육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종합 상황실, 개·폐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된다. 이들의 땀과 노력이 잊지 못할 전국체육대회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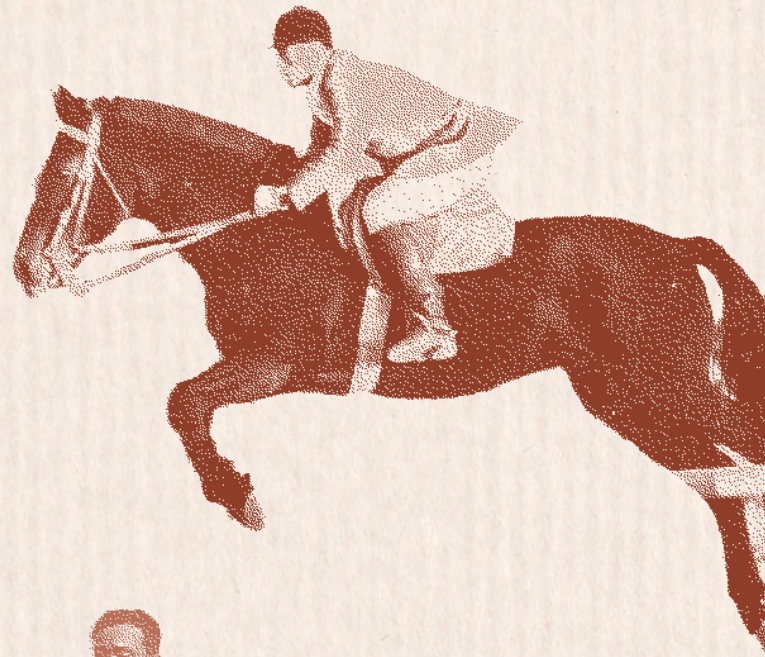


부산의 얼굴을 넘어, 자량으로

자원봉사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이들이 시민서포터즈다. 총 1만 6천 80명으로, 시민 7,093명, 학생 8,98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전면에 나서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전국체육대회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민서포터즈가 보여주는 젊음 에너지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전국체육대회를 더 활기차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오후 1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환호성과 함께 시민서포터즈 발대식이 시작됐다. 큰북 공연과 치어리딩에 현장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들도 결의문을 낭독하며 자원봉사자들처럼 마음을 다잡았다. 발대식을 마친 그들은 한층 더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발대식 후 부산시는 「서포터즈 활동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복무 지침, 응원 방식, 안전 대응 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근무복과 응원 도구를 지급해 통일된 운영 기반을 준비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들에게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으로 질서 있고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달라”며 서포터즈를 지지했다. 서포터즈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선수단과 관람객 모두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25년 만에 돌아온 전국체육대회.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뜨겁게 달구어진 상태다. 이 마음이 불씨가 되어,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숫자로 알아보는 전국체육대회 기념비적인 순간들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 첫 걸음을 내딛은 이후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숏한 이야기를 남겨왔다. 성화의 등장, 중소도시 첫 개최, 세계신기록 탄생 등은 그 자체로 한국 스포츠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숫자로 다시 본 전국체전의 순간들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와 지역, 그리고 국민 모두의 기억을 담아냈다.



참고자료: 김상구, 2007. 8., 『전국체육대회의 발전과정을 통해 본 체육사적 의의』,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사진 제공: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 위키피디아

전국체육대회는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회이다. 일제강점기하에서 조선 내 우리 민족만의 체육 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경민, 신민, 저항의 이름으로 1920년 ‘조선체육회’가 창립되었다. 조선체육회는 창립 이후 첫 경기 행사로 그해 11월 ‘전조선야구대회’를 열어 중학단과 청년단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했다. 당시 단일 종목 대회가기는 했지만 조선체육회의 창립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이 대회가 전국체육대회의 기원이 되었다.

1920년



1920년 전국조선야구대회에서 시구를 하는 모습

36회



제36회 대회에서 처음 등장한 ‘성화’의 모습

전국체육대회는 일제강점기하에서도, 6·25 전쟁 중에도 개최되며 그 명맥을 유지했다. 휴전 이후 1955년 제36회 전국체육대회는 23개의 종목에서 6,773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 대회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성화’가 등장했다. 당시 이상백 부회장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성화 봉송을 보고 감명을 받아 제의했는데,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성화가 채화되어 서울운동장까지 봉송되었다. 성화 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손기정 선수였다.

38회

1957년 제38회 전국체육대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대회였다.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되던 대회를 처음으로 지방에서 연 대회였기 때문이다. 개최지는 부산이었고, 이때부터 전국체육대회는 해마다

다른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게 되었다. 이는 지역 간 체육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체육대회가 명실상부한 ‘전국’ 대회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MVP)’을 신설한 것은 1980년 제61회 대회 때였다. 이후 매 대회마다 MVP를 1명 이상씩 선정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MVP를 배출한 종목은 수영이었다. 역대 가장 많은 MVP를 기록한 선수는 박태환 선수로, 2005년 제86회 전국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제88회, 제89회, 제94회, 제98회까지 총 5회 MVP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제95회 전국체전 박태환 선수 수영 자유형 200미터 금메달 획득

638개

전국체육대회는 대회 신기록부터 시작해 한국 신기록, 세계신기록까지 수많은 메달과 기록이 쏟아져 나오는 무대였다. 이 모든 기록을 합쳐 무려 638개의 신기록이 터져 나온 대회가 있었는데, 바로 제78회 전국체육대회였다. 당시 대회에서는 마라톤에서만 167개, 사격 100개, 롤러 99개를 포함해 사이클, 수영, 수중, 역도, 육상트랙, 육상필드 등 10개 종목에서 기록이 쏟아졌다. 이 중 양궁에서만 무려 4개의 세계신기록이 배출되었다.



제78회 전국체전 육상 경기

1만 명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는 ‘만 명 시대’를 연 대회였다. 이때부터 선수와 임원이 1만 명을 넘어서며, 숙박과 경기장을 포함한 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전국체육대회는 개최 도시의 체육시설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선수·임원 1만 명 시대를 연 제44회 전국체전 승마대회

60회

1979년 대전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체육대회는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을 선보였다. 3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메인 스타디움과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새롭게 건립되었다. 이로써 전국체육대회는 국제대회 유치를 준비하는 무대로 기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60회 전국체전 개막식

72회

1991년 제72회 전국체육대회는 처음으로 국제 대회 수준의 경기장 시설이 대규모로 활용된 대회였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체육대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당시 대회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시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전국체육대회는 세계적 수준의 경기력을 뽐내는 무대가 되었다.

87회

2006년 김천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체육대회는 ‘중소도시 개최의 첫 사례’였다. 김천은 대규모 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로는 최초로 전국체전을 개최했다. 이는 체육의 저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의 가

치를 새롭게 보여주었다. 또한 대회 마스코트 ‘뚝심이’는 경상도 사나이의 우직·정직·성실함을 상징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부산 4대 프로스포츠의 마지막 조각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

야구, 축구, 농구에 이어 프로배구팀을 유치한 부산은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 종목 구단을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됐다. 쪽 뻗어나가는 서비스와 시원하게 꽂히는 스파이크. 열정의 도시 부산에 걸맞은 화려한 경기를 선보일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선수단을 방문해 이야기 나눠보았다.



Q.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배구단은 2013년 프로배구 제7구단으로 창단한 젊은 배구팀으로 선수에겐 만족을, 팬들에겐 행복을, 지역사회에는 소통을 선사하는 것을 가치로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창단 2년 차인 2015년부터 정규리그 2위, 챔피언결정전 우승 등의 성적을 기록하는 등 신생팀으로서는 보기 드문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로도 각종 대회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Q. 부산으로의 연고 이전 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강서체육공원의 시설은 어떤가요?

지하철 3호선 체육공원역 바로 옆이라 접근성이 좋습니다. 팬분들이 관람 오시기에도 편리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부산아시아안게임을 치른 경기장답게 규모가 크고 관중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데다가 부산 광역시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셔서 홈구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MINI INTERVIEW 권철근 단장님

2025년은 우리 배구단은 물론 한국 프로 배구 역사에 뜻깊은 해입니다. 프로배구단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남부권 도시 최초로 부산시 프로배구팀이 운영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배구 인프라,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배구 사랑 덕분에 우리 배구단은 새로운 등지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팬들의 스포츠 사랑은 이미 유명하지요? 그 뜨거운 열기와 응원의 함성을 오롯이 이어받아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승화해 보이겠습니다. 오는 11월 9일, 부산에서의 홈 개막전 경기. 잊지 마시고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화이팅!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 화이팅!



Q. 연고지 이전 후 맞이하는 첫 시즌입니다. 선수단의 각오는 어떤가요?

야구, 농구, 축구의 응원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은 열정적인 스포츠 팬들이 많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출정식에서 그 열기를 실감하고 나니 기대와 긴장감이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응원 열기가 뜨거운 곳에 왔으니 우리 선수단 역시 그에 부응하는 경기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보완하는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공격적이면서 범실 없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사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속공 호흡과 중앙에서의 화력 등 지난 컵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막 전까지 보완해 ‘이기는 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바뀐 환경에 적응 중인 선수들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프로선수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덕목이자 숙제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선수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뜨겁게 응원하는 지역으로 온 만큼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경기에 임하길 바랍니다.

Q. 끝으로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을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즌 전부터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팬들이 우리 팀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게 재미있는 배구, 흥미로운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선수

부산 성지중학교와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한
V-리그 12년 차의 베테랑 리베로



Q. 팀이 부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고등학교 시절 부산에서 배구를 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인 만큼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부산 사람 특유의 열정과 시원스러움을 오랜만에 만끽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저도 부산의 지역색에 걸맞은 호쾌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산의 후배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낍니다. 9월 초 부산 배구부 후배들과 배구교실을 한 차례 진행했는데,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선수 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편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선배, 언제든지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선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 이번 시즌 부산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감독님도 새로 오셨고 외국인 선수들도 바뀌었습니다. 팀 컬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작년 플레이와 비교해 보신다면 볼거리가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연고지 이전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Q. 배구단을 응원해 주시는 부산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익숙한 곳에 돌아온 만큼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연히 동기 부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구의 진짜 재미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규 선수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 은메달리스트

Q. 팀이 부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 팬들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과연, 지난 출정식 때 보여주신 응원 열기가 대단해서 상당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기대가 큼니다.

Q.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은?

개막전을 치르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응원과 팬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부산을 제2의 고향이라 여기고 더 빠르게 적응하고 녹아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배구단을 응원해 주는 부산 팬들에게 한마디해 주신다면?

새로운 홈에서 시작하는 첫 시즌인 만큼, 절치부심해서 좋은 성적을 내겠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힐링 무대

2025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 2회 차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송현지

지난 9월 1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2025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가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마련한 것으로, 바다를 찾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주말 저녁을 선사하였다.

‘2025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9월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었으며, 부산시민공원에서는 10월 1~3주 토요일, 송도해수욕장에서는 10월 25일과 11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매회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회차별로 200~3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9월 14일에 진행된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채워졌다.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메인 무대에서 가수 ‘백프로’의 비치콘서트와 ‘STAPS’의 탭댄스 공연이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어진 체력왕 콘테스트에서는 운동 인플루언서 ‘김민수’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과 이벤트가 어우러진 행사 현장은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다. 메인 프로그램인 달밤 비치 요가는 유튜브 겸 물리치료사 ‘빵느’의 지도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요가 매트를 펴고, 달빛, 바닷바람 그리고 파도 소리를 벗 삼아 고요히 호흡을 맞췄다. 바다와 하늘, 음악과 몸짓이 하나 되는 순간 참가자들은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깊은 평온을 느꼈다. 무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특별했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호흡하는 모습, 어린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웃

으며 자세를 따라 하는 모습, 산책 중이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모습은 이 행사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달밤에체조 부산 챌린지’는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 축제였다. 바다에서 부는 바람과 파도의 리듬 그리고 참가자들의 호흡이 어우러진 그 순간 광안리의 밤바다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무대가 되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노력과 발전이 이어진다면 부산의 생활체육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이미 바닷가 달빛 아래에서 함께 호흡한 시민들의 환한 미소 속에 피어나고 있었다.



부산의 매력을 잇다, 세븐브릿지 투어 현장

2025 세븐브릿지 투어

제5기 부산스포츠기자단 정상우

지난 9월 21일, 부산 도심 해상 교량과 지하차도 등을 달리는 자전거 축제인 ‘2025 세븐브릿지 투어’가 비경쟁 대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해상 교량을 이용해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도시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 속을 달리는, 전 세계 유일한 대회였다.

대회에는 사전 참가 신청을 한 라이더 3천 명이 각각 77km와 33km 두 코스로 나뉘어 달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해상 교량과 지하 차도를 모두 지나는 대회로 사전 신청기간 때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를 포함한 4개 해상 교량과 아름다운 부산의 대표 경관을 만끽했다. 또한 대회 도중 을숙도대교에서 약 1.2km 구간에 타임어택을 진행하여 상위

20명, 하위 20명 그리고 행운의 번호 77등, 777등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했다. 대회 코스는 평소 차량 통행으로만 이용되던 구간이 개방돼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무엇보다 광안대교에서 자전거를 타는 이색적인 경험에 큰 호응이 있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차량 없이 도심 교량을 달리니 속이 뽕 뚫리는 기분”이라며 대회의 구성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부산시에서 안전에 유의한 것이 눈에 띄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교통 통제와 안내를 진행하여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대교 위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안전 수칙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코스 중간에 두 곳의 급수대와 보급소를 설치한 것도 참가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

었다. 이 외에도 광안대교 상판에서 전문 사진작가가 찍어주는 피니시 모먼트 스튜디오, 라스트 스프린트 챌린지, 세븐 브릿지 바이크 클래스 등의 부가적인 행사들이 진행되었고 많은 라이더가 참가하였다. 벅스코 행사장 안에는 자전거를 무료로 정비해주는 부스와 완주 메달 각인부스를 비롯해 이번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들의 제품을 체험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더욱 인기를 끌었다. 대회 관계자는 “이번 세븐 브릿지 투어를 통해서 ‘페스티벌 시월’의 개막을 알리고 세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마음껏 자랑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민족 얼이 살아 숨쉬는 한민족 전통 무술 씨름&택견

한민족의 정서가 담겨 전해오는 씨름과 택견은 단순한 무예를 넘어 우리 민족의 기상과 공동체 문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국가무형유산일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지정된 우리 무예. 씨름과 택견에 대해 알아보자.

씨름의 역사

기원전 2333년. 단군조선이 건국된 이래 문헌에는 ‘치우화’라는 이름의 무술이 등장하는데 이를 씨름의 기원으로 본다. 치우화라는 명칭은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전설적인 군신이자 무인으로 숭배되는 ‘치우천왕’에서 따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조선상고사’와 중국의 ‘후한서’에서는 ‘썰흠’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었고 오늘날에 이르러 ‘씨름’이 되었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벽화에 그 흔적이 남아있고, 고려 말 충숙왕과 충혜왕 시기에는 신분의 구분 없이 순수한 무력을 겨루기 위해 씨름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기산의 풍속화, 유숙의 대궐도 등에서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근대에 들어 소규모 씨름대회가 지역마다 성행했는데, 1912년 10월, 유각권 클럽의 주관으로 서울 단성사 극장에서 구색을 갖춘 씨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15년 1월에는 광무대 극장의 주최로 4주 동안 씨름대회가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씨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1927년 ‘조선씨름협회’가 창단되었다. 그해 ‘제1회 전조선씨름대회’가 휘문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근대 씨름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1982년 4월에는 ‘민속씨름위원회’가 발족하며 프로씨름 선수가 양성되기 시작했고 1983년 ‘제1회 천하장사씨름대회’가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민속씨름 출범 당시에는 태백급,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의 4체급이 운영되었지만 1987년 12월에 태백급을, 1991년 5월에는 금강급을 각각 폐지하여 백두급(100kg 이상)과 한라급(100kg 이하) 2개 체급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2017년 1월, 씨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남북 공동 등재되면서 전 세계에 ‘씨름’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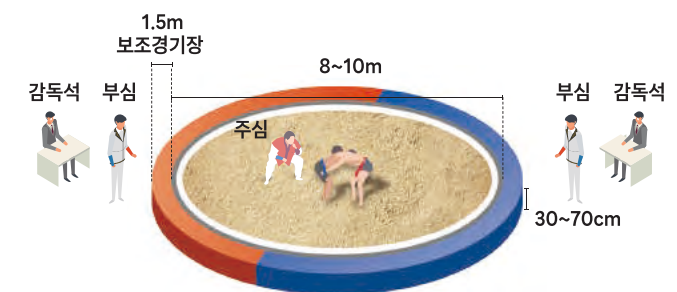
경기장

경기장은 모래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회 사정에 의해 매트로 제작할 수도 있다.

협회가 주최하는 정규대회, 민속대회, 생활체육대회 모래는 규사(자연사)로 규정한다.

보조경기장은 매트 및 모래로 할 수 있다.

유형	모래 경기장
높이	30~70cm
넓이	직경 8~10m
보조경기장 폭	1.5m



SSIREUM

복장

- 전문체육 경기복은 청과 홍으로 하며, 민속 씨름대회 경기복의 색상은 자유로 한다.
- 전문체육 경기복은 소속명, 선수명이 표기된 본인의 경기복이어야 한다.
- 전문체육 초·중·고등부 경기복은 좌·우측 중심선 폭 10cm 백색에 선수명을 표기하고, 대학부, 일반부 경기복은 좌·우측 중심선 폭을 15cm로 한다. 단, 고등학교 선수가 선수권부 경기에 출전하는 경우 흰선 15cm의 경기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소속명 표시는 경기복 뒷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소속명과 선수명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단체전의 경기복은 살바의 색상과 동일하게 착용해야 한다.
- 전국체육대회에 소속팀이 아닌 타 시·도로 출전할 경우 시·도명을 표기한 경기복 및 살바를 착용하여야 한다.

씨름의 규칙

- **승패기준** 무릎 윗부분이 모래판에 먼저 닿거나 모래판 밖으로 밀려나면 패배한다.
- **경기방식** 3판 2선승제를 원칙으로 하며 경기 시간은 대회마다 1~3분 내외로 한다.
- **시작자세** 서로 마주 선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으로 살바를 잡는다.
- **반칙** 손이나 발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지연하는 행위는 반칙으로 간주한다.

택견의 역사

택견의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립 과정에서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무술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는 무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전승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민속 경기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가 광복 이후 택견꾼 송덕기에 의해 복원되어 명맥을 이어나갔다. 택견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전승되어 왔는데,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결련택견과 자기 수양을 위한 훈련택견이 그것이다. 결련택견은 ‘결련태’라고도 하는데 마을 혹은 공동체끼리 편을 갈라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다. 일제강점기 초기, 서울 서북쪽의 서리들의 마을인 우대와 동남쪽 동대문·광화문 일대의 군총들이 모여사는 마을인 아랫대 사람들이 결련태를 즐겼다. 재주가 뛰어나고 많은 택견꾼이 나서기 때문에 결련태는 며칠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훈련택견은 본때보기로 대표된다. 기본수를 연결·조합하여 정형화시켜 종전의 겨루기 중심의 택견이 형식 위주의 가라데, 태권도, 우슈 등과 같은 근대 동양 무술로 전환된 것이다. 자연히 현대 무술의 영향을 받아 형식과 무도의 변화가 불가피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대한택견협회는 1910년 경기 형태의 재현과 당시 택견 전승 체계의 발굴에 힘쓰는 한편 1980년대 택견꾼 신한승이 재구성한 택견을 함께 전수하고 있다.

품계

택견에는 본래 품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80년대 이후 택견 대중화 방편으로 현대 무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급 제도를 도입했다. 무급, 8~1급, 초단~9단의 18품계가 있고 초심자가 9단에 이르려면 통상 40년의 수련 기간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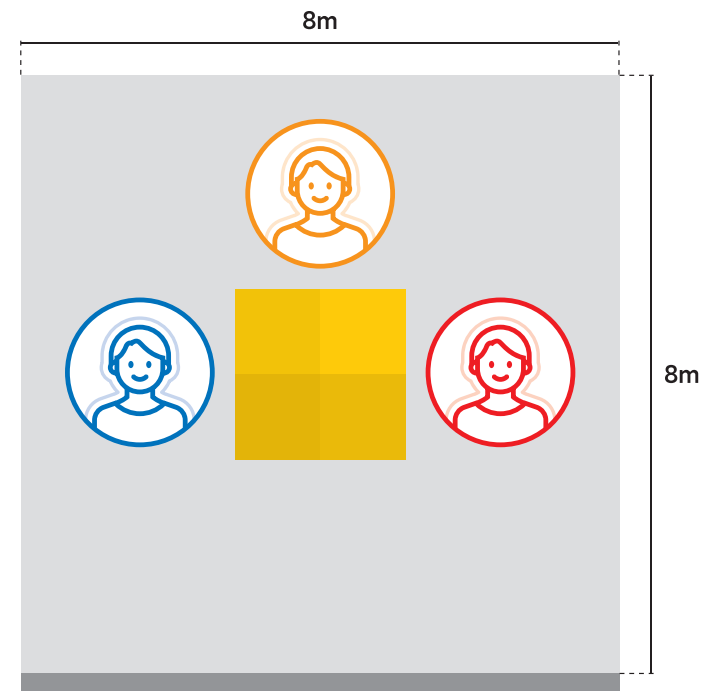
수련체계

- **겨루기체계** 택견꾼 송덕기가 정리한 체계로 기술을 혼자 익히거나 두 사람이 상대하며 메기고 받기를 주로 익힌 후 곧바로 경기를 치르는 체계
- **본때보기** 택견꾼 신한승(송덕기의 제자)이 1980년대에 본때보기 열두 마당을 창안하여 전수한 체계로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다. 이듬해 창설된 (사)대한택견협회의 주도하에 생활체육으로 전국에 보급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경기장

경기장은 평탄한 바닥에 사방 8m 이상의 탄력성 매트를 깔고 중앙에 선수와 심판이 설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 선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에 서되 감독이 심판석을 향하였을 때 오른쪽에 청, 왼쪽에 홍이 위치한다.
- 감독과 심판은 경기장 중심과 마주 보도록 하며 경계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책걸상을 놓고 착석한다.
- 주심판은 양 선수의 중간지점에서 감독심판석을 향해 선다.

복장

- 반드시 청, 홍으로 구분되는 규정 선수복과 행전, 버선을 착용한다.
- 선수복 안에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으나 흰색 무지 티셔츠만 가능하다.
- 규정상 허용된 발등, 정강이 등에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으나 밖으로 노출되어선 안 된다.
- 상대방에 상해를 줄 수 있는 용품과 장신구를 착용할 수 없다.



택견의 규칙

경기자가 상대방을 향해 한쪽 발을 내딛는 대접의 상태에서 손발을 사용해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얼굴을 가격하면 승리한다. 상대의 옷을 찢거나 상해를 입혀선 안 되기 때문에 급소를 공격하는 것을 지양한다. 장심, 족심, 발등만을 써서 연하고 무르게 공격해야 한다.



TAEKKYON

바다와 모래, 그리고 가을바람... 서부산 '슈퍼어싱 페스티벌'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서부산 다대포 해변이 특별한 빛깔로 물들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감각 힐링 축제 '슈퍼어싱 페스티벌'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은 것이다.

서부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축제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맨발로 모래를 딛고 바다와 하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어싱(Earthing) 체험은 다대포 해변의 매력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밤바다를 물들인 맨발의 여정

‘어싱(Earthing)’이란 맨발로 모래 위를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을 말한다. 땅(지면)을 뜻하는 ‘어스(Earth)’의 현재진행형에서 비롯된 말로, 신체 일부를 지표면에 직접 맞닿게 하여 지구의 에너지와 몸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9월 6일 개막식은 개그맨 허경환과 함께하는 유쾌한 맨발 체조로 문을 열었다. 웃음과 활력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창작국악그룹 ‘이별’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선율, ‘사이버거’의 흥겨운 무대, 감성 보컬 ‘이사흠’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스트릿 드러머 ‘드리머 도고’의 강렬한 리듬이 이어졌다. 각기 다른 매력의 아티스트들이 밤바다를 물들이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은 챌린지 어싱, 별빛 어싱, 사운드 어싱 세 가지 슈퍼어싱 코스로 진행됐다. 챌린지 어싱에서는 전문 헬스 인플루언서가 이끄는 활력 넘치는 맨발 걷기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나누었다. 또한 별빛 어싱에서는 LED 우산이 밤하늘의 별빛과 어우러지며 해변을 낭만적인 산책길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사운드 어싱은 LED 헤드셋을 끼고 음악과 파도 소리를 동시에 느끼는 감성 워킹으로, 참가자들을 몰입의 세계로 이끌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바다와 사람, 그리고 계절을 잇는 특별한 여정이었다. 젖은 모래 위를 맨발로 내딛는 순간, 참가자들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교감



을 느꼈다. 발끝에 스며드는 파도의 감촉과 바람의 결이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감싸 안으며 일상에서 놓쳤던 여유와 위로를 전했다.

오감을 자극한 다채로운 즐길거리

축제 현장은 부대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해졌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즐기는 해변 피트니스 마술비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는 이들의 건강한 땀방울로 열기를 더했다. 하와이 해변을 연상시키는 비치바에서는 맨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칵테일을 음미했고, 키즈 모래부스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모래를 만지고 쌓으며 오감을 깨우는 체험이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에서는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리며 축제의 맛을 더했다. 이처럼 다대포 해변은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신해, 모두에게 열린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자연이 주는 위로, 함께 나눈 행복

도심에서 벗어나 탁 트인 해변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서부산의 중심, 다대포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해 주었다. 주최 측은 “슈퍼어싱 페스티벌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연이 전해주는 위로와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행복의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을 대표하는 힐링 축제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의 발 아래에는 ‘지구’라는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이 놓여 있다. 다대포의 하늘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잠시의 머무름이었지만, 그 속에서 느낀 위로와 행복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우리 일상을 밝히는 힘이 될 것이다.

2025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부산광역시 씨름동호인 200여 명 참가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민족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저변 확대와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5 부산 씨름왕선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 15개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하여 남자부 3개 부문(청년부·중년부·장년부)과 여자부 3개 부문(60kg 이하·70kg 이하·80kg 이하) 등 총 6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씨름의 진수를 선보이며 전국체육대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부산씨름왕선발대회는 지역 씨름 동호인들의 기량을 겨루는 장으로서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촉진하고 구·군 간 화합과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 결과, 종합우승은 기장군, 종합 2위는 동구, 종합 3위는 사하구가 영예를 안았다. 여자부 체급별 1위는 60kg 이하부 해운대구 심연지 선수, 70kg 이하부 동구 황지영 선수, 80kg 이

하부 서구 서유빈 선수이며, 남자부 각 부문 1위는 청년부 기장군 김동훈 선수, 중년부 북구 황종국 선수, 장년부 기장군 박대훈 선수가 차지하였다.

특히 해운대구 심연지 선수는 여자 60kg 이하급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주목받았다. 심 선수는 중학교 3학년, 16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선수들과 견줄만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으며, 지난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여자 매화급(60kg 이하)에서도 공동 3위에 올라 부산 씨름의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씨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로, 부산 시민이 더 가까이 즐기고 생활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통 종목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3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 2022년 2위, 2023년 1위, 2024년 2위

대한체육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에서 부산광역시가 17개 시·도 중 2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체육회가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 순위가 매겨진다. 그동안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교육과 업무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난 4년간 순위가 상승하여 2020년 10위였던 순위가 2021년 4위, 2022년 2위, 2023년 1위, 2024년 2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문에서 도시 지역 전체 90개 시·군·구 중 상위 5개 구에 사하구체육회(1위), 서구체육회(2위), 금정구체육회(3위), 강서구체육회(5위)가 선정되어 부산 관내

4개 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위 1,180만 원, 2위 및 3위 각 830만 원, 5위 53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부산의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 얼마나 땀 흘려 노력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 평가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환경 개선과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산 생활체육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5년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관계자 워크숍 개최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조직관리자 운영·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부산광역시체육회는 9월 26일(금) 농심호텔에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실무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스포츠클럽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행정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조직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이 이어졌다. 또한 스포츠클럽과 유관단체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토의도 진행하여 실무자 간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비영리 법인·단체 형태의 클럽이다. 지역 주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전문지도자를 통한 체계적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전문 선수 육성,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스포츠클럽 및 유관단체 행정 실무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업무 능력 향상과 스포츠클럽 운영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공공스포츠클럽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부산선수단 전국체육대회 필승의 의지 다져

부산광역시체육회는 9월 29일(월)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여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단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 구·군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등 체육계 인사와 선수·임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 박형준 시장이 장인화 회장에게 단기를 수여하였으며, 선수단을 대표해 철인3종 허민호 선수(부산광역시체육회)와 농구 김주하 선수(동주여고 3학년)가 대표선서를 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대회다. 이번 대회를 통해 부산체육의 위상과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선수들에게는 기량을 발휘할 영광의 무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박형준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선수단 여러분은 부산의 자람이자 시민의 희망이다. 전국체육대회를 계기로 부산을 ‘스포츠 천국 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펜싱 송세라(부산시청), 요트 하지민(해운대구청) 등 개인종목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도(부산광역시체육회), 세팍타크로(부산체고) 등 단체전 종목에서도 입상권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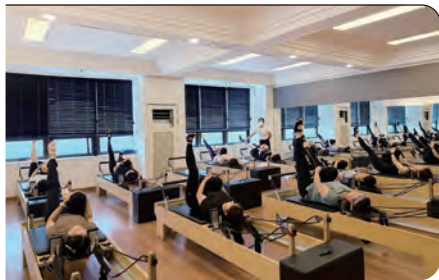
한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전역에서 진행되며 부산은 육상 등 50개 종목에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구군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2025년 제3기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구체육회는 9월 1일(월)부터 2개월간 진행될 중구민들을 위한 ‘2025년 제3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시작하였다. 생활체육교실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필라테스 외 3종목, 장수체육대학은 다이어트체조 외 3종목을 운영 중이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서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자체교육 실시

9월 24일(수),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자체교육’이 크로스핏세찬대신점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 활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지도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지도 방법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지도자들은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동구체육회



북항친수공원 노을 빛 걷기대회 개최

9월 13일(토), 북항친수공원 잔디마당에서 부산 동구와 동구체육회 공동 주관으로 해수부 임시청사 유치 환영 및 2025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북항친수공원 노을 빛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부산 시민 2,000여 명과 함께한 행사는 1부와 2부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어린이 치어리딩 등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2부에서는 걷기대회와 더불어 공연 및 경품행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영도구체육회



2025 부산씨름왕선발대회 개최

‘2025 부산씨름왕선발대회’가 9월 6일(토) 송도해수욕장특설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도구체육회가 주관하였으며 4개부 8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뤘다. 영도구 선수들은 청년부, 여자 60kg 이하부, 장년부에서 나란히 3위를 차지하며 값진 성과를 올렸다. 이날 현장에는 영도구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자리해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부산진구체육회



제44회 부산진구청장배 축구대회 개최

9월 21일(일), 황령산 레포츠공원 축구장에서 ‘제44회 부산진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부산진구 관내 동호인 축구팀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구민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치열한 승부 끝에 총무팀이 우승, 북부산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부산진구는 매년 다양한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미래 세대 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동래구체육회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9월 11일(목), 동래구 공공지원센터에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등 6건의 보고사항과 동래구체육회 정관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운영 관련 보고 및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날 정길호 회장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남구체육회



남구청 개청 50주년 맞이 제43회 오륙도사랑 걷기대회 개최

9월 20일(토),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남구청 개청 50주년 맞이 제43회 오륙도사랑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은택 남구청장, 남구체육회 정춘식 회장, 박수영 국회의원, 서성부 남구의회장을 비롯한 시·구 의원들과 남구체육회 임원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도착지인 백운포체육공원에서는 신나는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대회는 부상자 없이 마무리되었다.

북구체육회



제13회 부산광역시 북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대회 개최

9월 14일(일), 강서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13회 부산광역시 북구배드민턴협회 여성부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총 128팀이 참가한 가운데, 여북 53팀과 혼북 75팀이 자웅을 겨루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승패를 넘어서 화합의 장이었던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고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군체육회 소식

해운대구체육회



제5회 해운대구청장배 송도관 공수도대회 개최

9월 13일(토), 해운대순복음교회 체육관에서 ‘제5회 해운대구청장배 송도관 공수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80여 명의 공수도 동호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의욕을 증진할 수 있었다.

사하구체육회



‘2025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 종합 3위 입상

사하구체육회가 ‘2025 부산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대회는 송도해수욕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사하구체육회 선수들은 여자 60kg급과 여자 70kg급에서 각각 3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전통 종목인 씨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금정구체육회



제10회 금정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

9월 15일(월), 파크골프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제10회 금정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참가 선수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대회는 화명생태공원 파크골프장 A, B, C, D 총 4개의 구장을 활용하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동호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며 파크골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강서구체육회



2025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배 강서구 민·관 축구대회 개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2025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배 강서구 민·관 축구대회’가 9월 21일(일) 개최되었다. 강서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9개 팀 400여 명이 참가하였고 A, B조로 나뉘어 명지축구장과 신호축구장에서 경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는 친환경 체육시설을 선도하는 스포츠메카도시 강서구와 부산환경공단이 함께하여 축구 동호인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지고 상호 소통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연제구체육회



제28회 연제구청장기축구대회 개최

연제구체육회는 9월 14일(일) 축구 동호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명생태공원 축구장(A, B구장)에서 ‘제28회 연제구청장기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축구 동호인들은 정정당당하고 열정적인 플레이로 경기에 임했다. 경기 결과, 우승은 동성축구회, 준우승은 연우축구회가 차지하였다.

수영구체육회



2025년 수영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2025년 수영구청장배 동호인체육대회’가 9월 21일(일) 회원종목단체 총 8개 종목 1,300여 명의 동호인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열띤 경합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지역 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사상구체육회



2025년 사상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 개최

9월 13일(토), ‘2025년 사상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가 사상구청 한마당홀에서 개최되었다. 사상구청과 사상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지역 내 9개 팀 108명이 참가해 국학기공의 멋과 정신을 함께 나누었다. 대회 결과 우승은 엄공동호회팀, 준우승은 주례2동동호회, 3위는 주례1동동호회, 장려상은 여성문화회관팀이 차지하였다. 국학기공은 전통 심신수련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체육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 세대 간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장군체육회



복군 30주년 기념 ‘2025 기장군민 걷기대회’ 개최

기장군 복군 30주년을 기념하고 기장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이웃 간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 기장군민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다. 2,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체조 후 일광드림볼파크에서 출발해 월드컵빌리지를 거쳐 한 바퀴 돌아오는 약 3.5km 거리를 함께 걸었다. 완주까지 40분가량이 소요되었으며, 걷는 동안 참가자들은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꿈나무체능단 가을 체험 교실 실시

부산국민체육센터는 꿈나무체능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9월 26일(금) 양산시 물금읍 텃밭에서 가꾼 고구미를 수확하는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는 기후 위기 시대에 단원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단원들이 자연의 감사함과 농부들의 노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마다 텃밭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봄부터 가을까지 모종을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고구마 수확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부산국민체육센터



2025년 강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9월 6일(토), ‘제9회 강서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가 강서구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되었다.

200여 명의 선수가 모인 가운데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또한 대회를 통해 지역 배드민턴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을 다지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서구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시설물 안전 보수 공사 실시

9월 2일(화)부터 5일(금)까지 4일간 테니스장 시설물 안전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공사는 800여 개의 철골 고정 와이어 볼트 재조임 작업과 고정강화를 위한 실리콘 추가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렇듯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부산의 대표 테니스장으로서 안전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INFORMATION



전문 프리랜서 강사 배치

부산실내빙상장은 지난 8월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분야의 유능하고 역량 있는 전문 프리랜서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9월부터 전격 배치하였다. 쇼트트랙 강사 4명, 피겨스케이팅 강사 5명은 풍부한 지도 경험과 우수한 경기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강사가 1명 증원됨으로써 강습의 수준 향상과 회원들의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임강사 2명, 프리랜서 강사 9명 총 11명의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한 부산실내빙상장은 정규강습 및 방학특강, 전문선수 훈련 등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실내빙상장



시설 점검 및 간담회 진행

9월 9일(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방문하여 시설 하자 및 위험요소 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점검은 체육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영장, 헬스장 등 주요 시설과 공용공간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체육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하자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신평장림체육관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1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클럽 테니스대회 개최

9월 24일(수), 27일(토) 2일간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2025년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클럽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600여 명이 출전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대회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남자부	금배A조	효원클럽	마스터즈(청)클럽	-
	은배조	효원클럽	불나비클럽	수정클럽
	동배조	효원클럽	인사이드클럽	한새벌(청)클럽, 조은강산넘버1클럽
여자부	금배조	다운클럽	팀이오클럽	-
	동배조	다운A클럽	금강A클럽	강서원더A클럽, 오렌지A클럽



2

국군체육부대(상무) 부산광역시 테니스 재능 기부

9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2일간 스포원테니스장에서 국군체육부대(상무)의 테니스 재능 기부가 있었다. 재능 기부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포인트레슨, 실전게임 등은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었다. 국군체육부대(상무)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한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

3

제3회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회장배 철인수영대회 개최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이 9월 21일(일) ‘제3회 동의과학대 스포츠클럽회장배 스웜앤런 레이스 철인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지역 기반 생활체육 모델로서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사업’ 기금을 지원받아 마련되었으며, 총 200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기획된 생활체육 축제로, 다양한 혜택과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결합해 공공성과 참여성을 강화하였다. 대회

운영은 안전과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문 안전요원 배치, 심박수 모니터링 장비 도입, 응급 의료 지원 체계 마련 등 선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동의과학대스포츠클럽은 2024년부터 축적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주민 공동 참여와 사회적기업 연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이번 대회에 지역 동호인이 참여하며 ‘대학-지역 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부산체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부산체육』을 읽고 이벤트에 응모해 보세요. 이번 호에 실린 기사에서 퀴즈의 정답을 모두 찾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부산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중 몇 개의 종목은 타 지역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다음 중 부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수영 ② 사격 ③ 축구

2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금)부터 23일(목)까지 개최되지만, 여러 여건상 사전경기로 치러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사전경기로 진행된 종목은 무엇일까요?
① 테니스 ② 스쿼시 ③ 당구

3 ‘2025 달밤에 체조 부산 챌린지’가 매월 부산의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 진행 중입니다. 9월에 챌린지가 진행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① 광안리해수욕장 ② 부산시민공원 ③ 송도해수욕장

『부산체육』 제82호 <부산체육 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당첨자
1. ② 사격 2. ① 서구청&부산광역시체육회	김*주(7175) 박*영(3047) 장*경(5243) 김*경(7570) 윤*호(6397)
3. ③ 후쿠오카	함*예(5135) 박*미(3435) 함*영(9793) 김*미(5649) 설*혜(5969)

퀴즈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힌트와 해당 기사를 참고하여 풀어보세요!



1
힌트

타지역
●○○ ●사이클(도로) ●승마 ●족구

<체전은 지금> 5쪽

2
힌트

연번	구분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경기 일정							경기장
	종목	종별	10.17.(금)	10.18.(토)	10.19.(일)	10.20.(월)	10.21.(화)	10.22.(수)	10.23.(목)	
6	○○	일반부	사전 경기							기장체육관
13	배드민턴	전종별	사전 경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39	체조	기계체조	사전 경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리듬체조								
41	카누	전종별	사전 경기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43	태권도	전종별	사전 경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해외동포								
46	펜싱	전종별	사전 경기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
47	핀수영	전종별	사전 경기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체전은 지금> 6~7쪽

3
힌트

‘2025 달밤에 체조 부산 챌린지’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된다. ○○○○○○에서는 9월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었으며, 부산시민공원에서는 10월 1~3주 토요일, 송도해수욕장에서는 10월 25일과 11월 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 기자단> 34쪽

이벤트 응모

퀴즈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1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5.10.17.(금)~10.31.(금)
응모 방법 네이버 플랫폼 양식 작성 후 제출
정답 및 당첨자 발표 『부산체육』 제84호 <부산체육 퀴즈> 게재 및 개별 연락



네이버 플랫폼 바로 가기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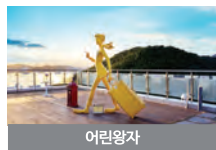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 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용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 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프로들이 선택한 No.1 스포츠 브랜드 어썸스타

KEEP GOING AWESOMESTA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스폰서



GIANTS
PARK SE-WOONG

2025
NEW

AWESOME STAR

| <https://awesomestar.co.kr>

| 부산시 체육회 공식 스폰서



walkon, 편안함을 넘어 회복으로

walkon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회복을 추구합니다.
수동적인 멈춤을 통해 회복하는 개념이 아닌, 능동적인 걸음을 통해
당신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걸음을 켜고(walkon) 건강을 신다



특허출원번호
제 10-2170264호

REUSHION



Heal Heel

충격에너지를 공간에서 소비하게
만들어, 종아리와 요추에 전달되는
충격을 20~25%가량 줄여줍니다

Toyole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여, 운동
후 생기는 발의 피로와 붓기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Reushion Project

Reushion Project를 통해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기업의 가치를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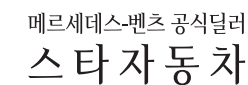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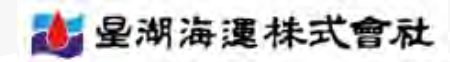
After Sports

운동후 피로 회복 / 건강회복에 도움

walkon

구입처 <https://walk-on.co.kr/> 문의처 051-521-3442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사장님 월급통장

처음이라는
묘한 **떨림**

첫 가게, 첫 고객,
그리고 사장님을 위한 첫 통장

사장님의 시작이 놓인 곳에
부산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품 바로가기]

【상품유형】기업MMDA

【가입대상】만 17세이상 개인사업자 (사업장당 1계좌 가입 가능)

【입금제한】최대 1천만원까지 (천원단위로 입금 가능)

- 입금 시 1천만원 넘는 거래가 발생 시 해당거래 전체 입금불가
- 근거계좌로부터 자동저축을 통한 입금만 가능, 그 외의 입금은 모두 제한 (단, 이 통장의 이자입금 제외)

【이자지급시기】다음 기준일에 계산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대하여 지급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 결산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당일
- 이자계산 기간은 최초예금일(또는 지난 결산일)부터 결산일 전일까지

【판매채널】모바일뱅킹

【금리안내】

- 기본이율 : 1.60%
- 우대이율 : 카드가맹점 입금실적 연 0.20%p(2025.6.24기준)
-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 적용조건 : 전월기준 근거계좌로 4개 이상 카드사 가맹점결제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입금(자동저축)】

- 자동저축의 기준금액은 전월 근거계좌의 총 입금액에서 총 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준금액에서 설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확정 금액이 다음날 자동저축방식으로 이 통장으로 입금
- 자동저축을 신청(반영)한 다음날부터 자동저축이 시작(반영)되며 매일(공휴일, 주말포함)적용
- 자동저축금액이 실행되는 시점에 근거계좌의 잔액이 자동저축금액보다 적은 경우 이체 불가
- 자동저축이 매일 실행되는 시점(오전 8시부터 순차적 실행)의 설정/중단 여부에 따라 해당일의 자동저축 여부 결정

- 자동저축되는 금액은 1천원~1백만원으로 천원단위로 가능

- 두가지의 모으기 방법 중 하나의 모으기 방법만 선택 가능하며 변경 가능

① 비율로 모으기 : 기준금액 X 비율(5%, 10%, 15%)

② 금액으로 모으기 : 고객이 설정한 금액만큼 자동저축 실행

【예금가입 유의사항】

-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1544-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5-1553 (심의일자 : 2025. 07. 16) | 유효기간 : 2025. 07. 16 ~ 2025. 12. 3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